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2020
연차보고서

KPFIS ANNUAL REPORT 2020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2020
연차보고서

KPFIS ANNUAL REPORT 2020

발간사

“ 우리나라 재정시스템(FMIS)을 더 똑똑하게 하고 시스템에 축적된 재정정보를 반듯하게 분석함으로써 ‘함께 가고, 오래 가는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2020년은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맞선 한해입니다. 재정정보원도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500조원대 본예산과 4차례 추경예산이 dBrain 시스템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때 제대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시스템 장애나 운영인력 감염 한번 없이 일년 내내 재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국가재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재정정보를 분석하고, 재정통계를 국민께 공개하고, 재정시스템 개선방안을 찾는 ‘재정정보 분석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정보원이 수행한 재정정보 분석업무를 모아, 처음으로 연차보고서 형태의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연구분석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통계집 한권이라도 더 알리고, 보고서 한편이라도 더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연차보고서에 실린 연구분석 주제들은 △재정시스템 개선 △재정통계 정비 △재정정보 연계 △재정집행 특성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과관리 개선 등 일부는 정부정책에 반영되기도 했고, 일부는 시스템 개선이나 통계정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일한 대중 상대 재정월간지인 『나라재정』은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 나라살림 현황, 국내외 재정전망 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확장재정 과정에서 분출된 여러 재정담론을 소개하는 공론의 장 역할도 일부 수행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려운 재정통계를 쉽게 가공한 △통계집 △해설서 △시각물 등도 제작·배포했습니다. 특히 15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결산보고서를 14쪽으로 요약하고 웹툰으로 만들어, ‘읽히는 결산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보고서·통계집 배포 △내용 설명 요구 △월간지 무료구독 △시각물의 활용 등 모든 문의를 환영합니다. 21년에도 재정정보의 분석·활용은 물론 재정통계를 국민께 제때, 쉽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 재 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2020
연차보고서

KPFIS ANNUAL REPORT 2020

CONTENTS

발간사 03

INTRO 06

part Ⅰ. 2020년 주요 연구 · 분석 보고서 08

01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10
02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11
03 dBrain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12
04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13
05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14
06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15
07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16
08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17

part Ⅱ. 2020년 주요 통계 자료집 · 해설서 18

월간 「나라재정」 20
재정통계 BRIEF 22
주요 재정통계 23
회계기금 운용구조 24
알기쉬운 국가살림 25

part Ⅲ. 2017 ~ 2019년 주요 연구실적 26

국가재정 관련 정책 개발 지원, 국가재정 업무발전 이바지

차세대시스템 및 제도설계 연구

차세대 시스템과 제도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dBrain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증거기반정책연구 플랫폼 구축연구

증거기반의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dBrain CI

재정현안이슈에 대한 선제적대응연구

국내·외 재정 이슈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재정현안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2020
연차보고서

KPFIS ANNUAL REPORT 2020

part . I

2020년 주요 연구 · 분석 보고서

01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02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03 dBrain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04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05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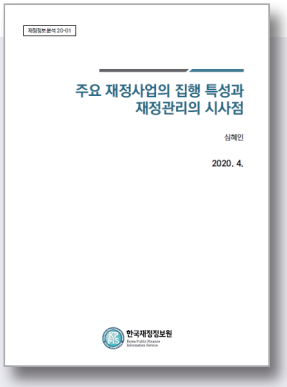
06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07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08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dBrain내 1만3천개 관리대상사업의 7년치 월별 집행자료를 끄집어내 분석했습니다.
어떤 사업은 왜 맨날 부진할까? 맞춤형 대안은?
궁금하면 QR코드 찰칵!

01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연구책임자 심혜인

연구목적

- dBrain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정보를 통해 집행 특성을 구체적으로 구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 모색

주요내용

-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①집행형태와 ②집행관리 목표의 기준에서 유형화하여 집행 특성을 분석
- 집행 형태에 따라 반기별 집중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행 특성을 분석
  - 상반기 집중집행형은 상반기와 연말 모두 대체로 양호한 수준, 하반기 집중집행형은 연말에 가까워져서야 상승하는 경향
  -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은 사업수 비중에 비해 예산현액 비중이 매우 큰 편(약 7배), 교부세 및 교부금과 교육급여, 주거급여지원 등 주요 급여 사업들도 상당 부분 포함
- 집행관리 목표에 따라 크게 상반기 조기집행과 하반기 집행률 제고(이·불용 최소화)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하여 집행 특성을 분석
  - 평균 집행률 부진한 사업은 사회복지의 주택, 항공·공항, 철도, 국방의 방위력개선 부문 등 SOC사업과 군시설 사업에 특히 많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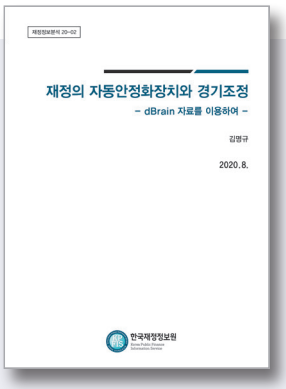
정책대안

- 관리대상사업 범위 조정 및 집중관리 및 체계적인 실집행 관리 필요
  -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사업과 집중 점검·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dBrain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
  -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e호조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집행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 필요
  -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구분 관리
  - dBrain시스템에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세부사업 관리자가 부진사유 유형, 상세 사유 등 내역을 등록하고 점검
- 집행점검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 강화
  - 집행 부진한 사업 예산 규모가 작고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 향후 dBrain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사업들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점검관리가 될 필요

자료 및 설명 요청 | 심혜인 박사(02-6908-8668)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변동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들도 안정화장치 규모를 키우라고 권고합니다.
진정한 경제체급은 몸무게뿐 아니라 근육량도 봐야겠지요.
우리나라 경기자동화장치의 규모는? 순위와 추세는?

02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연구책임자 김명규

연구목적

- COVID-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내재적 대응을 높일 필요
  - 이에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를 분석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에 대한 분석
- 본 연구는 완결성 있는 dBrain의 통합재정수지 세분류 자료를 활용한 자동안정화장치 구성요소별 분석
  - 기존 연구의 한계인 기업특별회계 누락 기간(2011년 이전)을 보완하여 dBrain 세분류 항목별로 자동안정화장치 규모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

주요내용

-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를 분석한 결과, 분할법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0.297, 일반정부 0.3230이었고, 총괄법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0.225, 일반정부 0.271
- 자동안정화장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
  - 최근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도 확대, 실업급여제도 강화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
- 우리나라 자동안정화장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 25개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는 연평균(1985~2018년) 1.45% 증가(OECD 평균 +0.11%, 회원국 중 2위)
  - 원인은 ①재정규모가 작고, ②경기에 민감한 수입·지출 항목 비중이 작고, ③조세의 누진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

정책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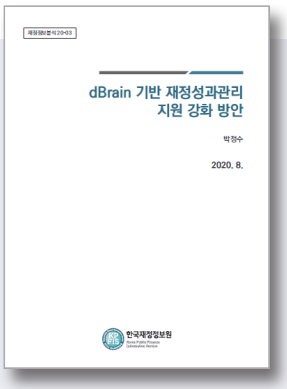
-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재량적 정책을 고려할 필요
  - 급여지급 기간의 OECD 평균 수준 확대, 구직급여 상한액 조정, 특별연장급여 제도 활성화 필요
  - 자동안정화장치의 보완 수단으로 △미국의 경기불황대비기금과 △일본·영국의 탄력적 예비비 운용 사례 소개

*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로 인해 경기 충격이 완화되는 정도를 의미

자료 및 설명 요청 | 김명규 박사(02-6908-8567)

같은 돈이라도 제때 제대로 집행하면 효과가 큽니다.
'가성비' 높게 집행되었는지 따져보는게 성과관리죠.
국내 7개 성과관리제도와 해외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03



dBrain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박정수

연구목적

- 현행 성과관리제도는 △평가제도·시스템의 분산 △정보 부족 △DB화 미흡 △평가단위 상이 △정보형식 비표준화 △연계 미흡 △활용 저조 등으로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구현하기에 한계
  - 증거기반의 재정성과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생산·저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과정보 활용성을 높일 필요

주요내용

- 재정관리제도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 해외 사례, 문제점 분석
  - (국내 현황 분석) 7개 재정평가제도의 △**평가시스템*** △평가방식 △평가단위 △주요 기능 △공개방법 등을 광범위하게 비교·분석
  - (해외 사례 검토) △세계은행·OECD의 재정평가 권고사항 및 동향 △미국 제도와 평가시스템 〈Performance.gov〉 △캐나다 제도 및 〈GC Infobase〉 특징 △해외 제도 시사점 도출
- (국내 평가제도 문제점) △재정사업별로 제도·평가·공개가 분산 △평가단위·평가방법 상이 △평가정보의 형식적인 생산·관리 및 표준화·통일성 부재 △칸막이 운영으로 연계·공유 미흡 △활용 저조

정책대안

- dBrain의 재정성과정보 관리범위 확대 필요(△성과정보 통합관리 △사업정보 및 속성정보 관리를 통해 결합분석 등의 기능 구현)
- 관리절차 및 거버넌스 확립 필요(△저장·활용 규정 △통계 추출 및 검색 기능)
- 재정성과정보의 공개를 강화할 필요(△통합공개 △표준화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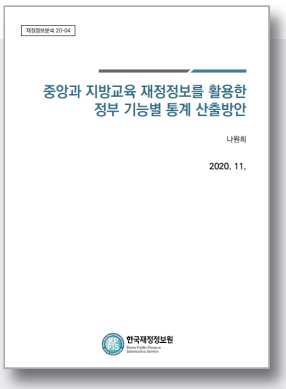
문제점	개선방안
dBrain관리정보 부족	dBrain관리대상정보 확대
정부의 성과정보 활용 부족	정부의 성과정보활용 증진방안 마련
성과정보 거버넌스 확대	관리·활용 절차 등의 거버넌스 확립
재정 성과정보 공개 부족	재정 성과정보 공개 확대

* dBrain(재정사업 자율평가), NTIS(연구사업), SIIMS(재난안전사업), NABIS(균형발전 사업), 일모아(일자리사업), e나라도움(보조금)

자료 및 설명 요청 | 박정수 박사(02-6908-8559)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은 통계간 칸막이가 견고합니다.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통합통계를 만들어볼 수 없을까요?
국제기준을 적용해 교육분야에서 처음 시도해봤습니다.**

04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연구책임자 나원희

연구목적

-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지출구조의 변화로 분야별 재원 배분이 중요

- IMF와 OECD에서 국제적으로 작성, 발표하고 있는 정부 기능별 분류(COFOG)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분야별 재정지출 수준을 분석
  - 특히, 우리나라 교육재정 거버넌스가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교육분야의 정부지출 산출 방안 등 종합적인 분석

주요내용

- 우리나라 교육분야 관련 시스템 현황 및 이슈
  - 교육 분야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dBrain, 열린재정), 시·도교육비특별회계(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단위학교 학교회계 결산자료(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시스템(대학재정알리미) 자료 활용
  - 교육분야와 관련한 시스템이 교육단계별(유·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원출처별(중앙, 지방, 지방교육)에 따라 별도 운영되고 있어 자료수집 과정에 어려움
  - 실제 교육분야 지출임에도 타분야로 분류되고 있는 사례 발견
  - 우리나라 교육분야의 프로그램예산체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국제수준의 비교분석에 한계

정책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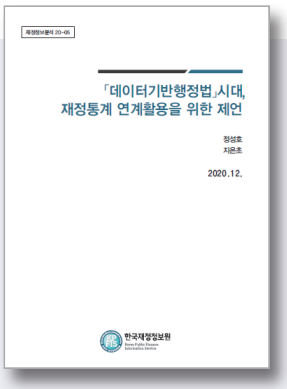
- 통합플랫폼을 통한 공개, 활용방안 마련 필요
  - 현재와 같이 다기화된 체계에서 가능한 하나의 재정 통로(채널)로 체계화할 필요

-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른 교육분야 프로그램 예산체계 수정·보완 시급
  - 현재 고등교육 이하 부문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매우 포괄적임. 교육단계별 재정지출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각 학교급(유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따라 세분화 필요
  - 교육부 이외 타 정부부처에서도 대학지원금, 대학의 연구개발비 등은 고등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명확한 지침과 기준 마련 필요

자료 및 설명 요청 | 나원희 박사(02-6908-8166)

감은 버리십시오.
이제 모든 의사결정은 데이터에 기반(data-based)해야 합니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을 맞아 재정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연계·결합 분석을 위한 메타정보를 모아봤습니다.

05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연구책임자 정성호 · 지은초

연구목적

- 증거, 데이터, 통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혹은 의사결정 움직임이 대세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을 맞아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책 개발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분야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연계·활용할 필요
-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해당기관 데이터의 관리방안을 넘어, 타 기관의 데이터를 알뜰하게 가져오고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주요내용

- 국가승인통계 중 선별된 재정통계를 통해 본 한계 및 대안
  - 국가승인통계 총 1,229종 중 21종(1.7%)의 정부·재정 분야 통계 존재, 분야와 관계없이 '재정통계와의 결합 활용성 및 연결성'이 높은 통계 20종 선별
  - 〈열린재정〉 통계와의 연계 및 결합분석을 위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 정리, 검토대상 재정통계를 연계·활용하고자 할 때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문제점과 한계 발생
  -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승인통계의 세부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열린재정〉, 〈e나라도움〉상 통계자료에 대한 원자료의 공개·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자료제공 방법, 공개범위 설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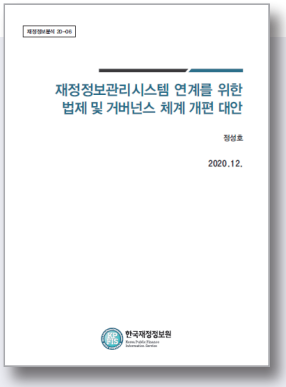
정책적 함의

- 재정통계의 공동활용 사전조건 탐색
  - 국가승인통계 중 재정과 관련이 있고, 〈열린재정〉과 결합하여 연구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했으며, 이는 향후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시행과정에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구성·관리하는 데 활용 가능
  - 재정통계별 연계·결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한계점 확인
- 향후 재정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 〈열린재정〉 통계와 다른 국가승인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각 통계자료의 포괄범위, 공표주기, 시계열 유지 등 체계적인 논의 필요
  - 〈열린재정〉과 〈e나라도움〉의 세부자료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제공 방법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준비 필요
  - 또한, 재정정보의 연계·활용을 위해 정부 및 타 기관에 어떠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 필요

자료 및 설명 요청 | 지은초 박사(02-6908-8271)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재정정보 공개도 늘고 투명성도 높지만, 여러 재정통계를 한눈에 보는
연계성에선 갈길이 멉니다. 무슨 법을 고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06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연구책임자 정성호

연구목적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개별플랫폼에 공개
-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통합공개하고 있으나 단순수집·나열된 데이터 공개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

주요내용

- 현재 연계방법의 한계 및 대안
  - 재정정보연계는 시스템문제로 치부하지만 실제로 법제 및 거버넌스의 문제로 법제도를 문제를 치유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문제를 치유할 필요
  - 기존 개별 공개포털은 유지하되, 열린재정에 집계되어야 하고,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표준연계가이드라인을 제시, 표준연계로직을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IMF의 GFS, PSDS에 기초한 연계)
  - 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액 정보가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구조로 변경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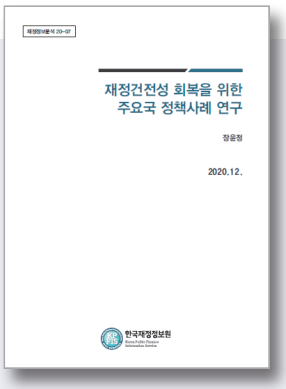
정책대안

-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 시스템 구축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더해 사전 사후 표준연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국가재정법)
  -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개발시(이후 포함) 시스템간 포괄적 연계를 위해 법에 표준연계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국가재정법)
  - 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정보가 실시간 집계되도록 연계방식을 구체화할 필요(보조금법)
  - 재정정보의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칭) 재정통계위원회)

자료 및 설명 요청 | 정성호 박사(02-6908-8591)

경제위기에 재정으로 대응한 이후에는 누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말합니다.
왜 어느 나라는 회복했고, 어느 나라는 실패했을까요?
어떤 정책이 결과가 좋았고, 어떤 대안은 공수표가 됐을까요?

07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장윤정

연구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재정지표 개선을 도모했던 주요국의 정책사례를 연구
- 성공적으로 재정지표가 개선된 국가의 사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고 차이를 빚어낸 요인을 분석
- 차질없이 계획대로 이행된 정책사례와 그렇지 못한 정책을 비교하여 추후 건전화 정책구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주요내용

-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립된 중기 건전화 계획과 주요 세부정책 사례 (예: 사회보장지출 감축, 행정비용 감축, 세목 신설)의 이행 경과 검토
- 4개국 중 독일과 일본은 중기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들 국가는 위기 이전 재정개혁 경험과 적극적인 지출 증가율 관리, 건전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님
- 반대로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건전화 기간 중 남유럽 재정위기 영향 등으로 지출 감축에 한계가 있었으며, 정권교체 후 건전화 정책 계획도 변경
- 세부 정책 계획 중에서는 주로 세입 확충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위기 이전 재정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은 지출감축(예: 독일의 실업급여, 일본의 지방이전지출)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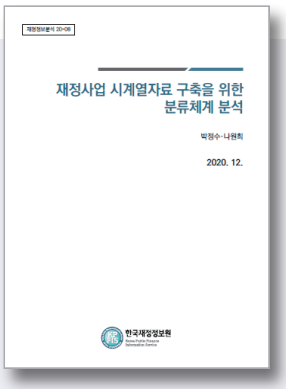
정책대안

- 위기 전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며 지출 감축 우선순위가 설정돼 있던 국가에서 위기 후 재정건전화 목표가 달성되었음에 비추어, 지출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또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건전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국가들이 중기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보완 필요
- 재정수입 확충 정책은 재정지출 감축에 비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많으므로, 건전화 정책 입안시 이를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

자료 및 설명 요청 | 장윤정 박사(02-6908-8157)

많은 통계 중에서 재정분야는 유독 시계열이 자주 단절됩니다.
부처가 바뀌고, 사업 명칭이 바뀌고, 사업 내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단절 요인을 관리할 방법은? 차세대 dBrain에서는 좀 나아질까요?

08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연구책임자 박정수·나원희

연구목적

- 현행 재정통계는 △총량 위주 △세부사업 시계열 관리 기능 부족 △사업정보와 연계정보 시현 기능 부족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조직 부재 등으로 세부사업 시계열 통계 제공에 한계

- 재정사업 시계열 통계 정비를 통한 유사 사업군별 추이를 비교하고, 성과·총사업비 등 연계정보의 시현, 사업별 지출·불용액 추이 제공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 분석 기능 강화와 공개 정보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주요내용

- 국내 재정통계 집계 및 분류 기준 및 dBrain 재정통계 및 세부사업 시계열관리 기능 현황, 사회복지 분야와 SOC 분야에 대한 시계열 구축을 위한 시범 분석

  -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정보, 세입세출 운용 결과,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사업의 분할·통합, 정책 변동으로 인한 추세 단절 사업 등 시계열 특이 사업을 유형화하고, SOC 분야의 경우, 정부조직개편, 사업명칭 및 코드 변경 등에 따른 시계열 단절 원인을 유형화해 시스템에서 관리방안 제시

- 시계열 재정통계 산출과정에서의 한계

  - 재정통계 시계열화의 제약은 시스템의 한계가 아닌 다양한 시계열 단절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사업 관리지침 부재, 절차 미비 등 법·제도 측면의 문제

정책대안

- 시계열자료의 구축과 자료 공개확대필요

  - 시각화, 시계열자료 등 자료제공방식 다양화

-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시계열 자료 관리를 위한 지침·절차 등을 마련해 업무 단위에서 시계열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자료 및 설명 요청 | 나원희 박사(02-6908-8166)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2020
연차보고서

KPFIS ANNUAL REPORT 2020

part . II

2020년 주요 통계 자료집 · 해설서

- 월간「나라재정」
- 재정통계 BRIEF
- 주요 재정통계
- 회계기금 운용구조
- 알기쉬운 국가살림

월간 「나라재정」

월간
나라재정
2020. January
1

월간
나라재정
2020. February
2

월간
나라재정
2020. March
3

월간
나라재정
2020. April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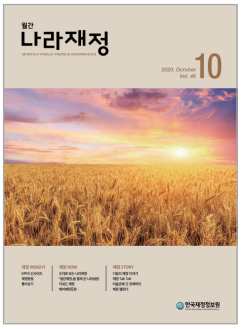
월간
나라재정
2020. May
5

월간
나라재정
2020. Jun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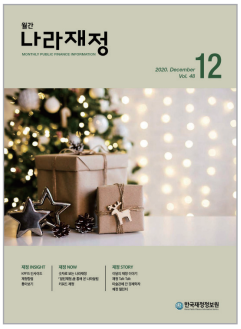
월간
나라재정
2020. July
7

월간
나라재정
2020. August
8

월간
나라재정
2020. September
9


월간
나라재정
2020. October
10

월간
나라재정
2020. November
11


월간
나라재정
2020. December
12

재정은 어렵다구요?
우리나라 유일한 대중상대 재정잡지 『월간 나라재정』이 있습니다.
재정정책, 나라살림 현황, 주요 분석과 전망 등을 제때,
쉽게,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꼼꼼하고 깐깐한 독자가 돼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톺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재정,
해외재정동향,
Data for All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자,
KPFIS의 서재,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재정캘린더

INSIGHT : 재정 현안, 동향, 개선방안, 시사점 등을 통해 재정역량을 키우십시오

재정칼럼 : 재정학자, 재정당국자, 해외 석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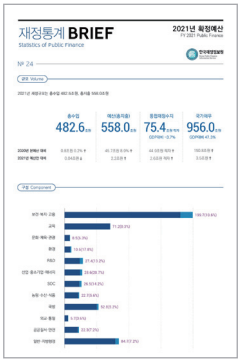
톺아보기/숫자로보는 나라재정 : 주요 정책과 통계를 인포그래픽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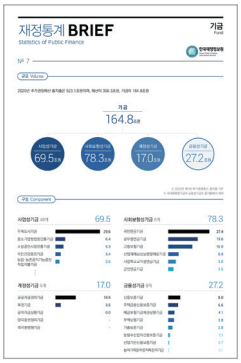
키워드 재정 : 국민관심 사안을 파악해 그에 맞는 주요 재정사업 현황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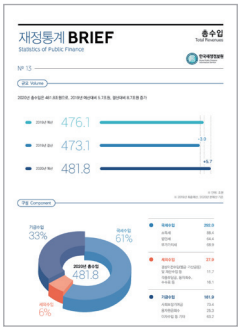
Data for ALL : 뉴딜로 전기가 값싸게 공급돼 미국경제부흥을 이끌었듯이, 누구나 편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술, 동향, 정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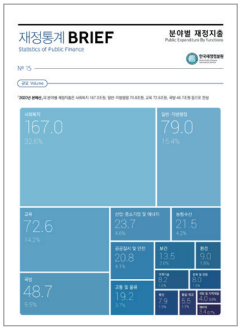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자 : 미술작품을 통해 재해석한 경제 이야기,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사상과 철학. 박물관 못지않은 박학과 재미에 빠져보십시오

무료구독 신청 | 재정정보분석본부(02-6908-8581)









재정통계 BRIEF

“ 예산안, 채무, 수지, 결산, 수입, 지출…
우리나라 주요 통계를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교재를 만들어야하는데
저작권이 해소된 시각물 자료가 없다구요? 지금 요청하십시오.”

순번	주제
1	2020년 재정
2	국가채무
3	재정수지
4	국유재산
5	추가경정예산
6	일반회계·특별회계
7	기금
8	사회보험성기금
9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	통합재정
1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결산
13	총수입
14	총지출
15	분야별 재정지출
16	사회복지
17	2021년 예산안
18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9	교육
20	일반·지방행정
21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	재정융자
23	국민관심사업
24	2021년 확정예산

자료 활용 요청 | 재정정보분석본부(02-6908-8581)

"**재정통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dBrain의 재정정보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시계열화하여 제공, 재정구조의 변화 등 재정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주요 재정통계

"한권으로 끝냅니다.
방대한 dBrain에서 꼭 필요한 숫자만 쏙쏙 뽑아,
우리나라 재정의 모든 통계를
예산체계에 따라 시계열화해 담았습니다."

Ⅰ. 주요 재정통계

01 재정체계 3
02 재정수입 5
03 재정지출 12
04 지방재정조정 96
05 총사업비 104
06 계속비 107

Ⅱ. 분야별 재정지출

0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111
02 일반·지방행정 분야 117
0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9
04 통일·외교 분야 140
05 국방 분야 149
06 교육 분야 159
07 문화 및 관광 분야 169
08 환경 분야 180
09 사회복지 분야 191
10 보건 분야 206
11 농림수산 분야 216
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7
13 교통 및 물류 분야 239
14 통신 분야 250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0
16 과학기술 분야 269
17 예비비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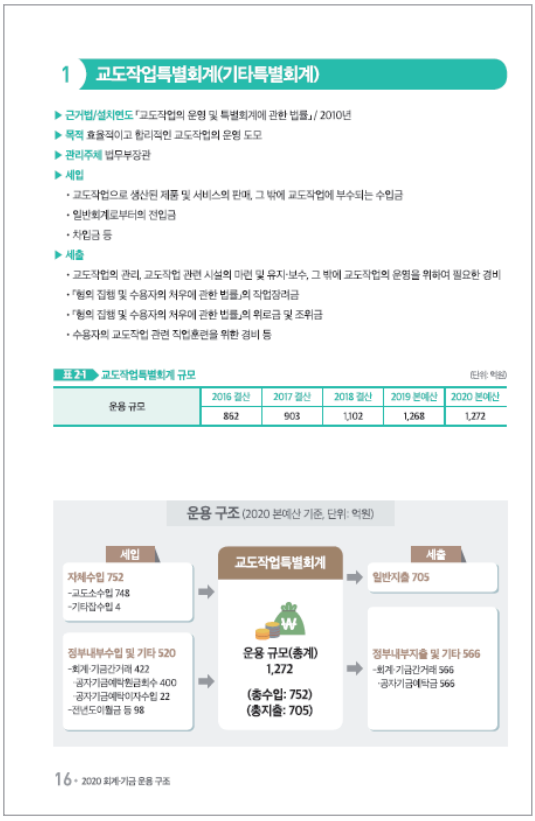
Ⅲ. 국제통계

01 재정수입 283
02 재정지출 288
03 재정건전성 292

자료 활용 요청 | 재정정보분석본부(02-6908-8581)

회계기금 운용구조

"dBrain을 활용해
일반회계, 20개 특별회계, 67개 기금의 수입
지출, 내부거래, 결산을 도식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1 교도작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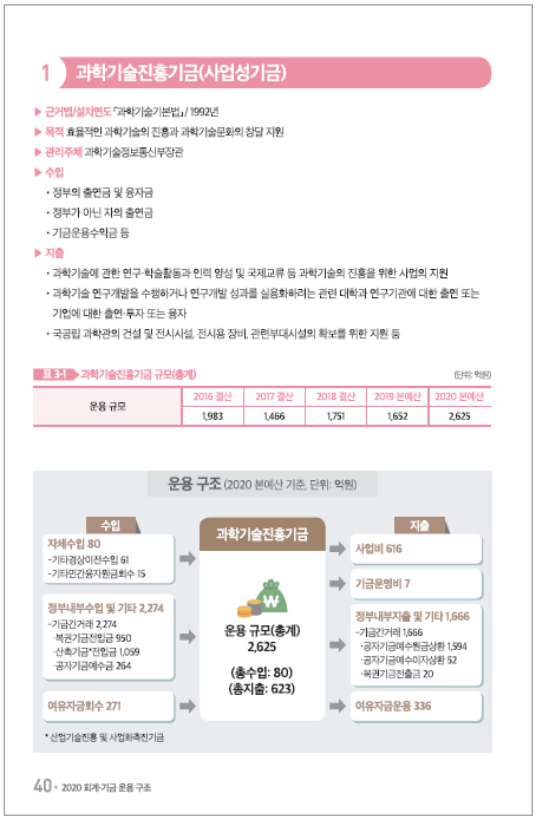
▶ 근거법/설치연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010년
▶ 목적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 도모
▶ 관리주체 법무부장관
▶ 세입
-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등

▶ 세출
-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작업장려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위로금 및 조위금
-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등

표 2-1 교도작업특별회계 규모 (단위: 억원)

운용 규모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862	903	1,102	1,268	1,272

운용 구조 (2020 본예산 기준, 단위: 억원)



1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성기금)

▶ 근거법/설치연도 「과학기술기본법」/ 1992년
▶ 목적 효율적인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지원
▶ 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수입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기금운용수익금 등

▶ 지출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투자 또는 융자
-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

표 3-1 과학기술진흥기금 규모(총계) (단위: 억원)

운용 규모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1,983	1,466	1,751	1,652	2,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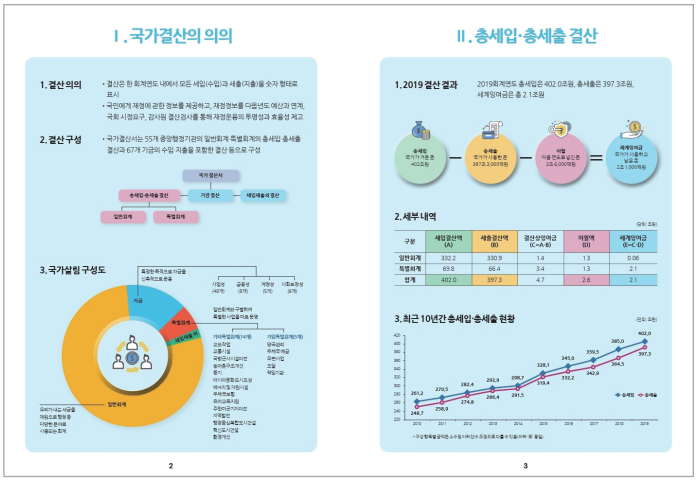
운용 구조 (2020 본예산 기준,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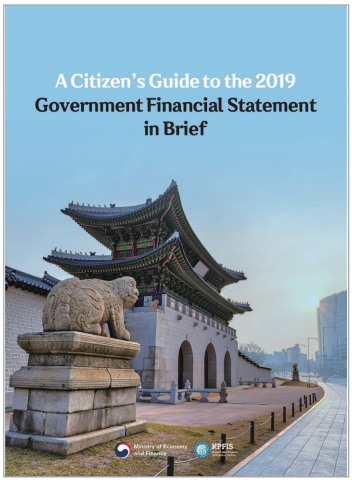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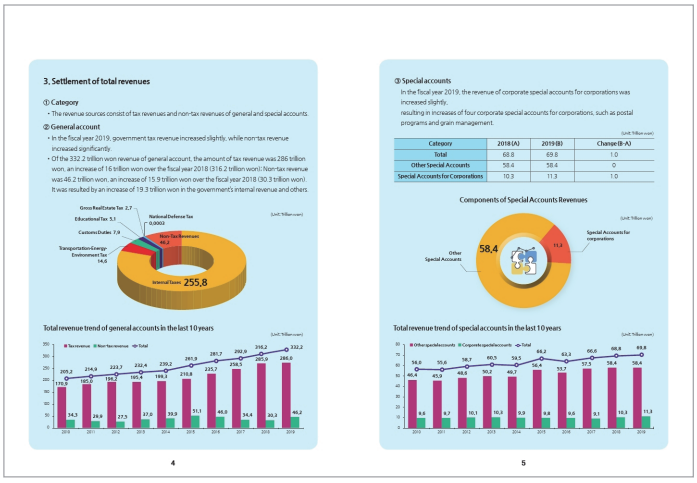
자료 활용 요청 | 재정정보분석본부(02-6908-8581)

알기쉬운 국가살림

“ 1500쪽 국가결산서를 14쪽으로 요약했습니다.
‘국민에게 읽히는 결산서’를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영문으로도 만들고, 웹툰으로도 만들었습니다. ”







자료 활용 요청 | 재정정보분석본부(02-6908-8581)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2020
연차보고서

KPFIS ANNUAL REPORT 2020

part . III

2017 ~ 2019년 주요 연구분석 보고서

2017~2019년 주요 연구분석 보고서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

분류	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9-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한승희
19-2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관리	정성호
19-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재정수지 산출방안	김명규
19-4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 방안	박정수
18-1	기금의 신축적 운영과 시사점	김선옥
18-2	우리나라 재정정보공개 제도 시스템 개선방안	박정수
18-3	재정정보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연훈수
18-4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	김명규
17-1	정부재정통계(GFS) 기준 지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진단	정성호
17-2	SOC 사업 재정집행 특성 연구	박정수
17-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능 개선방안: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승희
17-4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 재정관리 방안	박소영

2021년 연구분석과제 수요조사

"국민, 전문가, 정부의 똑똑한 외뇌(外腦)가 되겠습니다.
재정정보원이 무엇을 연구·분석하면 좋을지 요청해주십시오."

연구분석 제안자	성 명	
	소 속	
	연 락 처	
	이 메 일	

제안과제명	
연구분석 필요성 및 목적	▪ ▪
주요내용	▪ ▪
정책활용 예상분야	▪ ▪
연구분석 예상기간	
기타의견	

※ 기관설립 목적, 연구 인력 여건, 기존 과제 등으로 인해 요청주신 연구주제를 미처 수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양식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02-6908-8581, E-mail: analysis@kpfis.or.kr)

2020 연차보고서

발행인 김재훈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대표) 02-6273-0500

문의 재정분석기획부

홈페이지 http://www.kpfis.or.kr

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KPFIS ANNUAL REPORT 2020